

영화와 함께 울고 웃으며 잊지못할 '추억의 밤' 보내



지난 6월 2일(목) 초록빛 가득한 등나무운동장에서 개막작 <2016 필름 판소리, 춘향전>을 시작으로 영화소풍길에 나선던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가 6월 6일(월) 무주산골영화관에서 그 여정을 마무리 했다.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무주산골영화제에는 무주군 전체 인구를 보다 많은 총 26,000여명이 관객이 산골 무주를 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실내 상영관에서 진행되는 매회 영화마다 관객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고 300석이 넘는 예매문화관 대공연장의 좌석이 가득 채워지기도 했다.

이로써 무주산골영화제는 엄선된 영화와 특색 있는 이벤트로 관객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데 성공하며 관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휴양영화제로 관객들에게 각인되었다.

▲ 무주산골영화제에서만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개막식, <2016 필름 판소리, 춘향전>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는 페스티벌 프렌즈 오지호와 손은서를 비롯하여 국내외 유명 배우와 많은 영화인들이 참석하였으며, 배우 박철민, 김혜나의 사회와 대표 밴드 불어를 가을겨울의 울림 있는 공연으로 네 번째 영화소풍길을 시작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무주군의 명소인 등나무운동장에서 한국고전영화 <성춘향>과 국립창극단 단원 이소연의 소리 그리고 색소포니스트 손성제의 음악이 결합한 <2016 필름 판소리, 춘향전>을 선보이며 개막식을 방문한 2천여 명의 관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무주군 전체 인구 보다 많은 26,000여명 관객 방문 성황

'산골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 · 공연이벤트 등 특별한 순간 선사

▲ 무주산골영화제만의 특색 있는 극장, '숲 속 극장' 반응 뜨거워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받았던 프로그램은 '숲' 섹션의 영화들이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덕유산 국립공원 대집회장에 마련된 숲 속 극장에서는 오기카미 나오키 감독의 <요시노 이발관>, <카모메 식당>, <안경> 뿐만 아니라 <아비정전>과 <브로크백 마운틴>이 35mm 필름으로 상영되었고, 오기카미 나오키 감독이 직접 숲 속 극장을 찾아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아비정전>과 <브로크백 마운틴>이 상영되었던 지난 4일과 <비틀즈 : 하드 데이즈 나이트>, <헤이마> 등 음악영화들을 상영했던 5일에는 비로 인해 낮아진 기온에도 불구하고, 수백여 명의 관객이 새벽 늦은 시간까지 쏟아질 듯 아름다운 별 아래 영화를 관람하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 <소년, 달리다> 뉴비전상 수상, <델타 보이즈> 건지상 & 전북영화비평포럼상 수상 <스틸 플러워> 무주관객상 수상

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 '청' 섹션의 10편 가운데, 한국 영화의 미학적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시선과 도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영화적 비전을 보여준 최우수 영화에 수여되는 '뉴비전상'(상금 1,000만원)은 강석필 감독의 <소년, 달리다>가 수상했다.

그리고 감독 자신만의 확고한 영화 언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영화에 수여하는 감독상인 '건지상'(전북대학교 후원)과 전북영화비평포럼 회원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선정한 '전북영화비평포럼상'의 수상작은 고훈수 감독의 <델타 보이즈>에게 돌아갔다.

마지막으로 무주에 거주하는 영화 애호가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선정한 '무주관객상'은 박석영 감독의 <스틸 플러워>가 수상했다.

▲ 영화소풍길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준 토크프로그램, 전시와 공연 & 이벤트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 공연이벤트를 통해 영화 소풍을 온 관객에게 무주산골영화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선사했다.

지난해 신설되어 호평을 받았던 '산골 토크'는 올해 총 8

회가 진행되었으며, 영화감독 이해영과 정치학 박사 하승우 교수, 음악평론가 김작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영화제 기간에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GV)에는 <카모메 식당>의 오기카미 나오키 감독을 비롯하여 <몽주>의 이준익 감독과 배우 박철민, <시선 사이>의 신연식 감독, <커티컬>의 배우 박철민과 <족구왕>의 배우 황승언, 황미영 등 총 17편의 감독과 프로듀서, 배우 등이 참여했다.

또한 김반장과 윈디시티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과 예매문화관 광장에서 진행된 프로파간다 포스터 전시도 관객들의 영화소풍길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다. 페스티벌 프렌즈 오지호와 손은서는 그린카펫과 개막식 및 핸드프린팅 행사에 참석하여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를 빛내주었다.

▲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로 가는 영화관 큰 성과 거둬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딧불 시장을 야외상영장으로 사용하고, 낙화놀이로 유명한 안성면의 두문 마을을 야외상영장으로 추가하여 외지 관객과 무주군민들이 어우러져 영화를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야시장, 낙화놀이와 같은 무주만의 마을의 행사와 연계하여 관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영화 소풍을 온 관객들은 야시장과 낙화놀이와 함께 다양한 실내의 극장뿐만 아니라 마을로 찾아가는 영화관에서 자유롭게 영화를 즐겼고, 영화제 기간 내내 영화와 함께 울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잊지 못할 산골 무주의 밤을 만끽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 mujucc.gaontec.co.kr

군민 郡民 중심 中心의 민주의회 民主議會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통문화의 장

안릿골 Banditgol Traditional Crafts Culture Village

전통공예 문화촌